Overcoming Economic Hardship :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서 지 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인적자본(Human capital) 이론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론은 모두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자본과 경제적 복지 간의 관계에 관한 양적 분석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NSFH)라는 미국의 패널 데이터 중 '시기 1'(Wave 1, 1987-88년)과 '시기 2'(Wave 2, 1992-94년)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표본은 주요응답자가 60세 이하 여성이며 시기 1에서 측정된 가족소득이 본 논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정의된 빈곤선(poverty threshold)의 150% 미만인 696가계이다.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시기 2에서 가족임금이 빈곤선의 150%를 초과하는 정도로 측정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족의 복지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영(zero)수준에서 검열되는 변수(censored variable)이다. 독립변수는 "시기 1 시점에서 측정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특성"과 "시기 1과 시기 2 사이에서 일어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특성의 변화 정도" 등 2개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인적자본은 교육수준, 주당 노동시간, 신체적 건강수준, 우울감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사회자본은 비공식적 관계, 공식적 관계, 거주지 이전, 사회적 지지, 가족적 지지 등으로 측정되었다. 통제변수인 가족체계 변수에는 미성년자녀의 수, 결혼지위 등이 포함되었다.

토빗(Tobit) 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며, McDonald와 Moffitt(1980)의 "분해 과정(decomposition procedure)"을 이용하여 "발단 효과(threshold effect)"와 "차이 효과(change effect)" 등 두 가지의 효과를 구분하였다. 발단 효과는 저소득층 여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시기 2에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지수준 자체를 넘어서는지 아닌지에 관한 이분화된 영향을 나타내며, 차이 효과는 여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복지수준을 넘어선 초과분에 해당하는 연속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연구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LIMDEP(8.0)이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은 모두 각각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여성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상대적인 기여도는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투자에 관련된 가족복지정책이 논의되었다.